

# 21세기 수산업의 비전\*

—한·일공동심포지움—

최 정 윤\*\* · 김 병 호\*\*\*

## A symposium on Fisheries' s Vision in the 21th Century

— Korea and Japan Joint Symposium —

Choe, Jung-Yoon · Kim, Beong-Ho

| 目                 | 次              |
|-------------------|----------------|
| I.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    | 2. 발표와 토론      |
| II. 공동심포지움 개최의 목적 | IV. 공동심포지움의 성과 |
| III. 발표와 토론       | Abstract       |
| 1. 행사진행           |                |

### I.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

지난 1999년 6월 25일(금) 한국수산경영학회(회장 최정윤)와 일본지역어업학회(회장 倉田 亨)는 한국의 부산Lotte Hotel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한·일공동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이날의 심포지움 개최배경과 주제의 성격, 발표 및 토론의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21세기 수산업의 비전」으로, 양국 학회관계자들의 수차의 협의를 통해 정한 주제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한·일 양국어의 동시통역으로 진행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공동심포지움의 성격과 토론의 결과를 재정리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원과 일본에서 참가한 일본지역어업학회 소속 수산사회과학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수산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종일 성황을 이루었다. 심포지움에 발표된 세부주제는 21세기 어업관리의 중심과제인 TAC관리제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WTO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산물 무역과 유통문제의 두 분야로 하였으

\* 1999년 6월 2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수산경영학회와 일본지역어업학회의 “제1회 한·일공동 학술심포지움”의 주제임.

\*\* 부경대학교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

\*\*\* 부경대학교해양산업정책학부 부교수, 한국수산경영학회 총무이사.

며, 한일 양국에 각각 2명의 주제발표자와 주제별 좌장 및 토론참여자 7명 등 총 11명이 나섰는데, 이 가운데서 주제발표 논문 4편에 대해서는 한국수산경영학회의 수산경영론집 Vol.xxx(1999.6.30)에 전량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한일 공동학술심포지움을 기획하고 개최하기까지는 2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최초의 한일 공동심포지움은 한국의 부산에서, 그리고 한국수산경영학회가 주최하기로 양국 학회 대표자간에 결정을 보았다. 이전부터 공동학술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학회간에는 수차의 대화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부터였으며, 최종결정은 1998년 10월 일본지역어업학회의 沖繩 대회(일본에서는 학회 개최지에 명칭을 붙여 대회라 칭함)에서였다. 이 때 본 학회 간부 2명(여수대학 강연실 교수 본학회 부회장, 부경대학 김병호 교수 본학회 총무이사)을 일본지역어업학회 연차대회에 참석시켜 공동심포지움의 부산개최와 개최 일시, 개최 주제측의 역할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짓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학술행사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심포지움의 장소 선정, 발표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 수, 사용언어, 동시통역 문제, 발표논문의 번역 및 초록집 인쇄,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과 추진 조직의 구성 등 사전대비에 필요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또 심포지움 개최 당일의 원활한 행사 진행과 운영에 관한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II. 공동심포지움 개최의 목적

한일 공동심포지움의 주제발표에 앞서 행한 한국측 주최자인 한국수산경영학회 최정운 회장의 개회사 내용을 통해 이번 공동심포지움의 의의와 목적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과 일본의 수산경제·경영학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수산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여러분과 어업경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일본지역어업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수산업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치·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간에 여러 형태의 공식 비공식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크게 발전되었습니다만, 양국의 수산관계 학문과 과학기술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교수 및 과학자들은 공동주제를 놓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공개적인 학술심포지움을 갖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기억됩니다. 한일 양국은 一衣帶水의 이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조성된 양국간의 상호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같이 수산업을 중요시하고 있는 두나라의 입장에서 미래의 세계 수산업 문제를 두고 양국의 수산관계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격동하는 오늘의 세계를 바라볼 때, 앞으로 세계 수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되고 전개될 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예칙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세기와 새천년을 머지않아 동시에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대단히 엄숙하고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수산사회과학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어업자들의 경영을 걱정하면서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 문제, 수산물 교역의 확대와 유통합리화 문제 등을 논하고 실정을 분석하여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의의가 대단히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뜻있는 기회가 양국의 수산업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세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토론과 대안 개발의 장(場)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공동심포지움의 한국측 개최에 즈음하여 특히 일본으로 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일본지역어업학회장 倉田 亨 先生(近畿大교수)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며, 우리 부산에 오신 것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 공동심포지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경대학교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기선선망수협, 부산시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세화수산주식회사, 수산물도매시장협회 및 부산의 수산관계기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차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에 소개된 개최인사 내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 수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일 양국의 수산사회과학을 대표하는 두 학회가 처음으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기로 한 데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불확실하고 불안한 21세기의 수산업 문제를 세계 수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일 양국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 돌파구를 찾아 보자는 데 있다. 그것은 앞서 개최사 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양국의 수산업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세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토론과 대안 개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발표주제 가운데 부경대학 이상고 교수의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어업관리의 기능강화와 TAC제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일본 동경수산대학 오노세이찌로(小野征一郎)교수의 “일본의 어업관리 경험과 실천”을 세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이 같은 심포지움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일 양국간에 수산협력의 강화와 선의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양국 수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는 데 이번 공동심포지움 개최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양국 학회장의 인사 내용 여러 곳을 통해 언급되고 있고, 특히 일본지역어업학회장은 이 점을 더 중요시하여 공동심포지움은 “유사한 한일간의 수산업 구조에 비추어 양국 수산업의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여건 조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폐회인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셋째, 이번 한일 공동학술심포지움은 양국간의 학술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근본목적이 두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일 두 학회가 매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동심포지움의 개최 목적인 것이다. 양국은 수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및 사회·문화적 조건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어장을 상호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양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공식적인 학술교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

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수산사회과학을 보다 심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직접적인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아래 오래전부터 한일 두 학회는 여러차례 교류 의사를 교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양국사이의 외교관계,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한일관계의 인식 차이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예를 들면, 80년대에 이미 한국수산경영학회 전임 장수호 회장(당시 부산수산대학 교수)과 서일본어업경제학회 전임 야기쓰네오 회장(八木庸夫, 당시 나가사키대학 교수)간에 공동심포지움의 시기, 규모 방법등 구체적인 문제까지 논의된 바 있었으며, 일본의 원로 수산경제학자 中楯 興선생은 여러차례 이의 성사를 위해 개인차원에서 노력하였다. 금반 한일공동심포지움은 이와 같은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Ⅲ. 발표와 토론

#### 1. 행사진행

이상과 같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1999년 6월 2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공동심포지움에 채택된 주제와 발표 및 토론 참가자 등은 다음과 같으며, 당일 행사진행 순서는 <표>와 같다.

- 심포지움 주제 : “21세기 수산업의 비전”

사회 : 김병호(한국 부경대학 교수)

片岡千賀之(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수)

- 제 1주제 :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어업관리의 기능 강화와 TAC제도, 이상고(한국 부경대학 교수)

일본에 있어서 어업관리, 小野征一郎(일본 동경수산대학 교수)

좌장 : 島 秀典(일본 카고시마대학 부교수)

토론 : 市川英雄(일본 카고시마대학 교수)

신영태(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제 2주제 :

한국 수산물시장이 나아갈 방향, 김수관(한국 군산대학 교수)

일본에 있어서 수산물시장의 구조변화와 전망, 濱田英嗣(일본 시모노세끼시립대학 교수)

좌장 : 박성쾌(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 전수근(수원수산시장 대표)

山尾政博(일본 히로시마대학 교수)

- 종합토론 :

島 秀典(일본 카고시마대학 교수)

박성쾌(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표> 한일 공동심포지움 행사내용 및 순서

|   |
|---|
| 제 1부 개회(10:00-10:30)<br>1. 개회인사: 최정윤(한국수산경영학회장)<br>2. 심포지움 기획설명: 片岡千賀之(일본 나가사끼대학 교수)<br>3. 격려사: 홍승용(한국 해양수산부 차관)                          |
| 제 2부: 제 1주제의 발표와 토론(10:30-12:10)<br>1. 발표자: 이상고(한국 부경대학 교수)<br>小野征一郎(일본 동경수산대학 교수)<br>2. 좌 장: 島 秀典(일본 카고시마대학 교수)<br>3. 토론자: 市川英雄, 신영태     |
| 제 3부 제 2주제의 발표와 토론(13:00-15:10)<br>1. 발표자: 김수관(한국 군산대학 교수)<br>濱田英嗣(일본, 시모노세끼시립대학 교수)<br>2. 좌 장: 박성패(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br>3. 토론자: 山尾政博, 전수근 |
| 제 4부 종합토론(15:30-16:30)<br>1. 좌 장: 島 秀典, 박성패<br>2. 폐회인사: 倉田 亨(일본 일본지역어업학회장)  |
| 리셉션(17:00-19:00)  |

2. 발표와 토론

<표>에서와 같이 두 주제발표에 대하여 일본의 島 秀典, 市川英雄, 山尾政博와 한국의 박성패, 전수근, 신영태 등의 좌장 및 지정토론자들은 진지한 토론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島 秀典, 박성패 두 분이 토론을 종합하여 명쾌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4명의 주제발표자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그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음미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부경대학 이상고 교수의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어업관리의 기능강화와 TAC제도”에 관한 것이다.

어업관리의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서구의 산업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정착된 제도로써, 이것을 다양한 어로행위를 통해 대부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전통적인 소규모 어업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UN해양법 발효 이후 TAC제도는 이미 세계적 어업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몇몇 수산국 만이 이 제도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수산질서의 흐름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TAC제도의 원리와 도입에 따른 사전조치등에 대해 전개하고 있다.

- I. 신해양질서와 어업관리의 흐름
- II. 한국의 어업관리제도의 특질
- III. TAC제도의 효과적 접목과 운영
- IV. 신해양질서하의 어업관리정책
- V. 결 론

이 교수는 이상과 같은 발표내용을 통해서 TAC 원리의 해명과 이의 도입에 따른 준비과정, 그리고 TAC제도의 단계적 확대방안까지 제시하였으며, TAC의 본질 이해와 이의 도입 및 실천상에 있어서 지나치기 쉬운 여러가지 수산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해 준 점에서 양국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둘째, 일본 동경수산대학 小野征一郎 교수의 “일본에 있어서 어업관리”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어업법에 근거하여 어획노력량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져 왔지만, UN해양법조약(제 61조)에 의해 TAC의 설정과 여기에 근거한 어업관리의무가 각 연안국에 지워짐에 따라 일본도 어업관리의 세계적 동향을 살피면서 TAC제도를 고려하되, 중심대상은 일본의 근해어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 하였다.

- I. 문제의 제기
- II. 근해어업에 있어서 TAC제도의 운영
- III. 연안어업의 관리
- IV. 원양어업의 관리 - 국제적 어업관리기구
- V. 결 론

일본이 TAC대상어업을 근해어업으로 규정짓는 이유에 관해서 그는 연안어업은 잡다한 생계형 어업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1984) 과도한 어획경쟁을 억제하면서 분배와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해 자주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원양어업은 EEZ(Exclusive Economic Zone) 이원(以遠)의 어업이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TAC 설정의 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TAC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원양어업은 국제기구에 의해 “책임있는 어업관리”가 되도록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TAC 대상어업은 근해어업이 그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小野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수산청은 근해어업의 TAC 총량(2,767,219톤)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에서 대상어종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오징어, 꽁치, 명태, 대게의 7종으로, 대상어업은 대중형선망어업, 저인망어업, 오징어채 낚기어업, 붕수망어업, 대게어업의 5종으로 각각 정하여 TAC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소형어(小型魚)에 대한 규제조치가 동시에 뒤따르지 않는다면 총량규제(TAC제도)만으로써는 자원에 대한 성장남획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TAC 운영이 과연 MSY 실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효적인 어업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TAC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환기시켰다.

셋째, 한국 군산대학 김수관 교수의 “한국 수산물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것이다.

- I. 서언
- II.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사회적 Marketing Concept의 도입
- III. 수산물시장의 환경 변화
- IV. 수산물시장에 있어서 사회적 Marketing Concept의 실현
- V.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된 김 교수의 발표에서 중점은 한국 수산물시장의 금후 지향은 자원과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 자본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수산물시장 구축을 강조하는 데 두고 있으며, 그는 이와 같은 수산물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Marketing Concept이 도입되어야 하겠는데, 수산물 Marketing 활동이 시장주체의 상업이윤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생활 지향적 Marketing, 공정성과 효율성 중심적 Marketing,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Marketing 이념으로 정의한 이러한 사회적 마케팅개념이 수산물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생산자-유통기관이 3자의 통일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물시장에 있어서 사회적 마케팅개념 설정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이를 위해, 예를 들면, 정부는 HACCP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와 같은 수산물 식품안전성 문제와 수산물 거래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생산자는 자원관리-생산-출하를 동시에 고려한 생태레이블링(Bio-Labeling) 상품 개발과 생산자 실명제 노력 등이 필요하며, 유통기관은 단순한 수산물의 공급자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소비자 및 수요자 중심의 유통으로 이행할 것과 상품의 포장, 용기 등도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재생가능 자재를 사용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시모노세끼시립대학 濱田 교수의 “일본에 있어서 수산물시장의 구조변화와 전망”에 관한 것이다.

- I. 보고의 과제와 방법
- II.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문제
- III. 1990년대의 수산물가격 동향
- IV. 양판점의 도향
- V. 결 언

濱田 교수는 70년대와 90년대를 거쳐오는 20년 동안에 일본의 수산물시장과 유통의 변화를 수산물 가격 형성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발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였다. 그는 대규모 산지 또는 소비지 도매시장 주도하의 일본 수산물유통질서는 70년대 중반 고도경제성장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급격히 변모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비도시에 출현한 대규모 양판점 주도로 수산물유통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고, 수산물 가격 형성이 과거에는 도매시장 주도하에서 산지가격의 동향에 따라 소비지 가격이 조정되었으

나 이제 산지는 과거와 같은 독자적인 가격형성 메카니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기존 도매시장체제가 고원가 구조로 체질화되어 있는 데다가, 경직화된 시장경영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유통전략 개발에 실패한, 한마디로 도매시장체제의 동맥경화 현상이 주 요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수산물유통이 물류경비의 절감과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매시장법의 개혁을 비롯해서 산지어협과 제휴하고 있는 양관점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Ⅳ. 공동심포지움의 성과

1999년 6월 25일 「부산Lotte Hotel」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 개최된 최초의 한일 공동학술심포지움에는 약150여명의 양국 학회회원, 수산관계자,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시종 발표와 토론에 관심을 보였다, 또 토론시간에는 플로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과 질문이 나오는 등,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지역어업학회는 1999년도 하계 연차학회를 당일의 심포지움행사에 연결시킴으로써 40여명 가까운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최초의 한일 공동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일 공동심포지움에서 얻은 성과에 대하여는 다음 몇가지 점을 들어 자체평가해 볼 수 있다.

1. 한국수산경영학회의 국제화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처음에 이 행사의 실행을 앞두고 학회 관계자 대부분은 예산확보, 기획, 운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으나, 주위로부터 대체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한일간의 학술교류는 물론,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도 이 같은 심포지움이나 학술회의개최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게 한 것이 중요한 소득의 하나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면에서의 자극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이념적 원리 측면에 치중해 있었다고 보여지는 데 반해, 일본은 실천적 논리 개발과 분석적 현상 진단에 충실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양국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문제접근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방법론과 일본의 방법론이 각각 절충하고 상호보완되게 될 때 양국의 수산경영경제학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고, 또 체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공동심포지움에서 느낀 소감이다.
3. 양국 수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술교류협력의 강화에 기여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보고 내용에서 각자가 자국의 어업실태와 문제점을 거침없이 제시함으로써 양국은 서로의 수산업 구조에 대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식적인 세미나, 심포지움, 공동학술지의 발간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타진된 셈이다. 더욱이 일본측은 이를 계기로 2년후 제2회 한일 공동심포지움을 일본 福岡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므로 금번 한국에서의 공동심포지움은 앞으로 이 같은 국제행사를 정례화하고 공식적 한일 학술교류관계로 발전시킨 중



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제1회 한일 공동심포지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방문과 일본연구자들의 많은 참가 등으로 끝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일본지역어업학회장 倉田 亨 교수(近畿大)의 당일 심포지움에서 행한 폐회인사문을 소개함으로써 종결코자 한다.

「이번 한일 수산관계학회의 공동심포지움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는 이웃나라의 학자간에 상호이해를 한층 깊게하고, 21세기를 향해 손을 맞잡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최초의 기회이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1980년대에 들어 일본경제의 폭락을 시작으로 하여 아시아 경제는 전체적으로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제부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심각한 국제적 환경 변화와 경제위기와 같은 중요한 국제경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매우 유사한 한일간의 협력은 국제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상호 이해하기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는 데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의 벽이 양국의 연구자나 수산업자의 협력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공동심포지움에서 보았듯이 이제 선의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공동심포지움은 연구자 차원에서의 협력의 기회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정치문제를 넘어서 서양국의 책임있는 수산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만나서 악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공동심포지움을 통해 느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해 준 결과입니다. 이번의 공동심포지움은 최초의 수산관계연구자의 악수이지만, 앞으로 수산관련업계와 수산관계단체 여러분과 나아가서는 양국의 수산업에 관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서로 손을 맞잡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보다 의미깊은 것으로 하고, 훌륭히 성사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수산경영학회의 최정윤 회장님(부경대 교수)이하 한국측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1999년 6월 25일)。」

**A symposium on Fisheries' s Vision in the 21th Century**

**— Korea and Japan Joint Symposium —**

Choe, Jung-Yoon · Kim, Beong-Ho

**Abstract**

Th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Society of Korea(FBASK), with Dr. Jeong-yoon Choe as its president, and the The Japan Regional Fisheries Society of Japan(JRFS), currently headed by Dr. To-ru Kurada, jointly held a symposium on 25 June, this year(1999) at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Lotte Hotel, Pusan, Republic of Korea. The symposium, with its theme being as" the fisheries's vision in 21th century", attracted 150 participants, including scholars specialized in the field of fisheries social science from both sides, officials from both sides,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ne and Fisheries of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Korea fishing industry. Among those, 11 scholars, with membership of FBASK or JRFS, presented their papers or took part in discussion at this symposium. It was anticipated that this symposium would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the expansion of academic exchang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isheries experts.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the operation, performance, and outcomes of the symposium and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

1. the background under which this symposium was held ;
2. the selection of the symposium' s theme ;
3. th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t the meeting ; and
4. the preformance and outcomes of symposium